

INTERIOR

& D e c o r

2014/15 PRODUCT
REVIEW & PREVIEW

DECEMBER. 2014



heimtextil 2015 TREND PREVIEW

Long Museum West Bund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주)비안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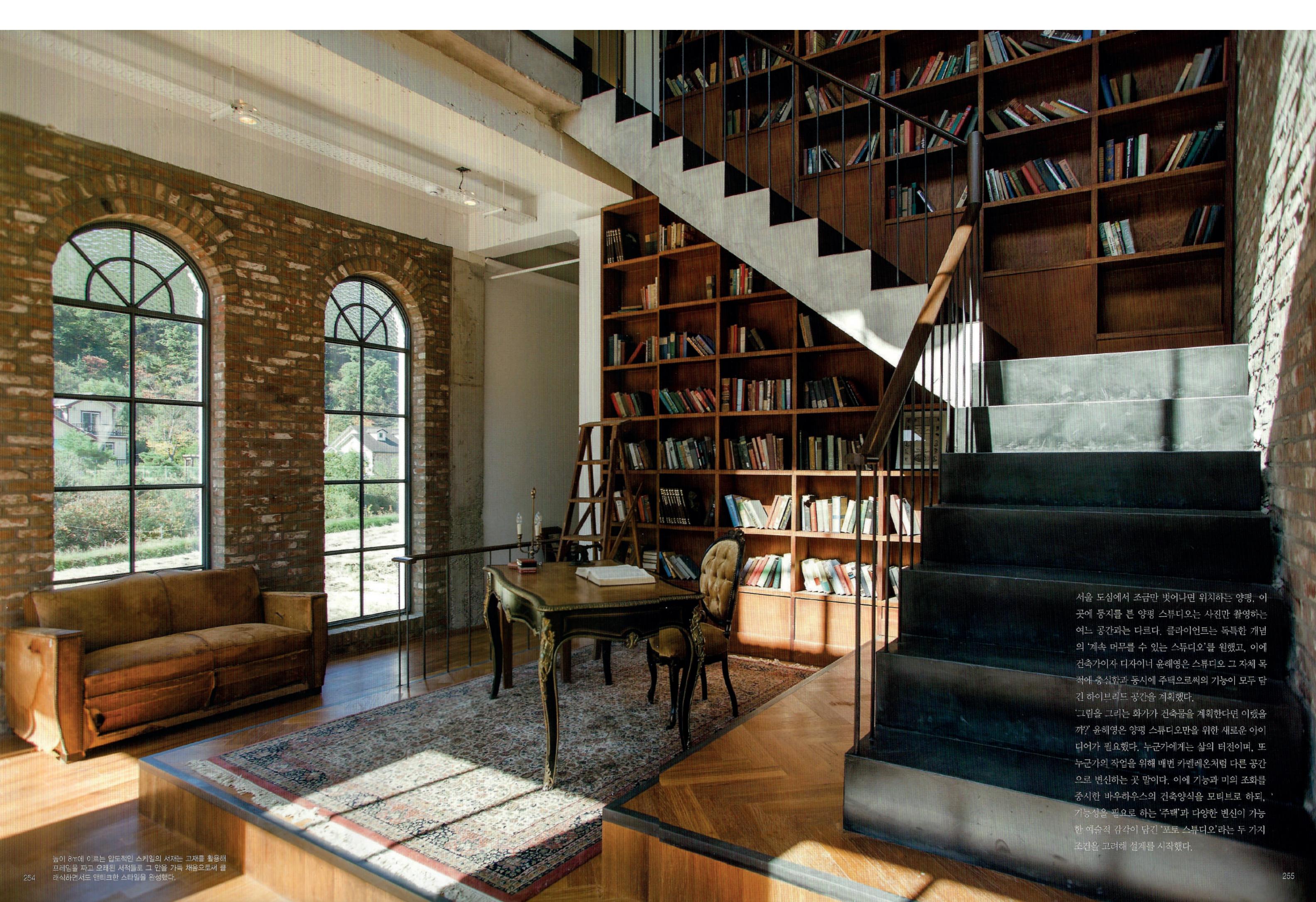


스튜디오는 가짜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공간, 기록에서만 볼 수 있는 지나간 시대의 분위기, 여행지에서 접했던 이국적인 정취, 현실과는 거리가 먼 호화로운 공간 등 우리는 스튜디오라는 공간 속에 길망하는 무언가를 재현해낸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 수는 없다. 스튜디오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평 스튜디오는 진짜다.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집이자 꿈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상적인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머무를 수 있는 포토 스튜디오
양평 스튜디오

취재 유승주



서울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위치하는 양평, 이 곳에 동지를 둔 양평 스튜디오는 사진만 촬영하는 어느 공간과는 다르다. 클라이언트는 독특한 개념의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스튜디오'를 원했고, 이에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윤혜영은 스튜디오 그 자체 목적이 충실히 동시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모두 담긴 하이브리드 공간을 계획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건축물을 계획한다면 이랬을까?' 윤혜영은 양평 스튜디오만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며, 또 누군가의 작업을 위해 매번 카멜레온처럼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는 곳 말이다. 이에 기능과 미의 조화를 중시한 바우하우스의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하되,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주택'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예술적 감각이 담긴 '포토 스튜디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 설계를 시작했다.

높이 8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서재는 고재를 활용해
프리임을 짜고 오래된 서적들로 그 안을 기득 채움으로써 글
라식하면서도 앤티크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256 스튜디오는 특성상 층고를 높게 계획하여 포토그래퍼가 자유롭게 앵글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큰설트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창호 디자인이 적용된 내부.



장식성을 배제하고 심플하게 완성된 작은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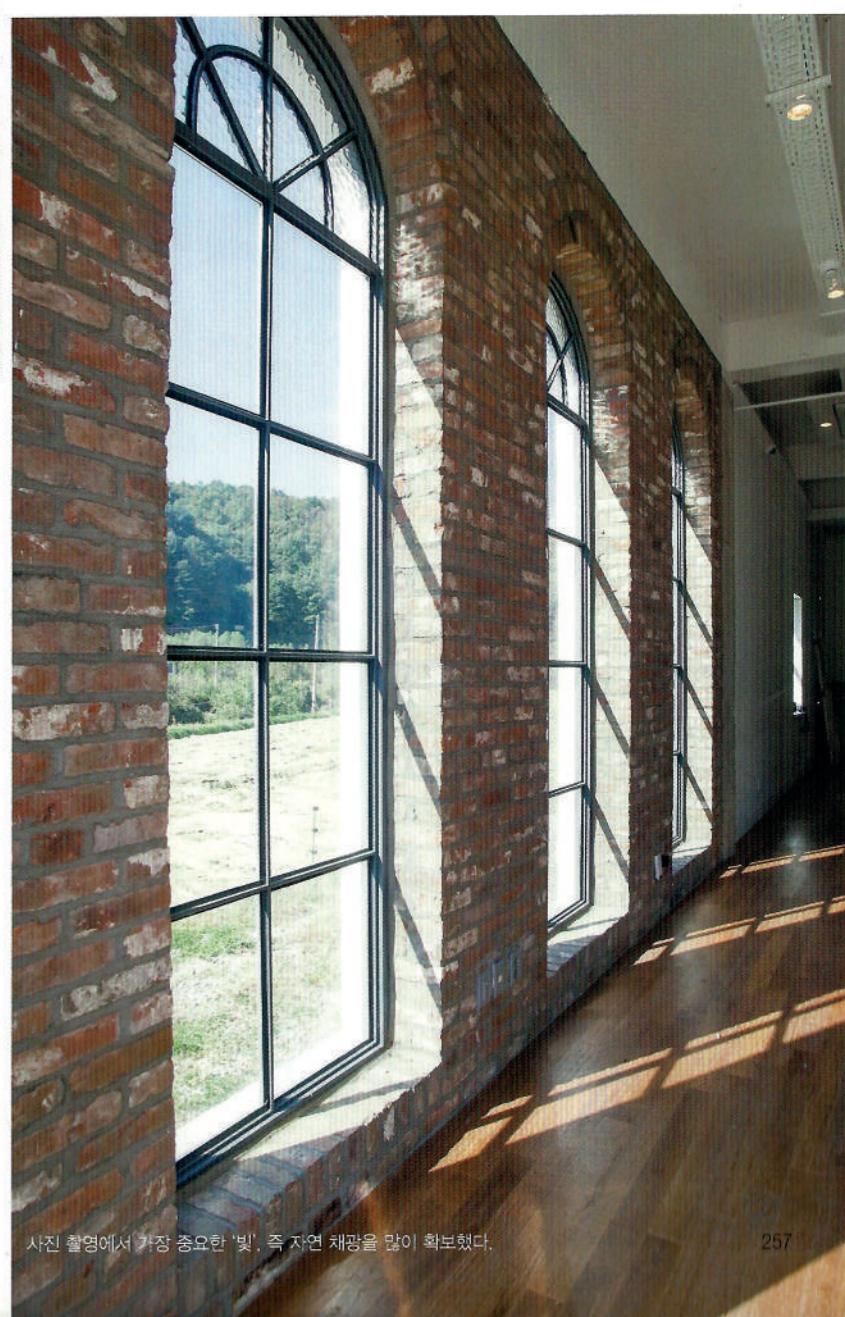


사진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빛', 즉 자연 채광을 많이 확보했다.

대부분의 촬영 스튜디오는 세트장의 모습으로 도심 한가운데 특히, 지상 보다는 지하에 많이 위치한다. 하지만 양평 스튜디오의 경우 사진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빛' 즉, 자연 채광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은 고스란히 느껴지고 창밖 너머의 여유로운 자연 경관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에는 트레이어가 지나도록 했다. 촬영용 조명뿐 아니라 소품 역할을 해줄 조명 또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스튜디오'를 원했고, 이에 디자이너는 스튜디오 그 자체 목적에 충실했과 동시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모두 담긴 하이브리드 공간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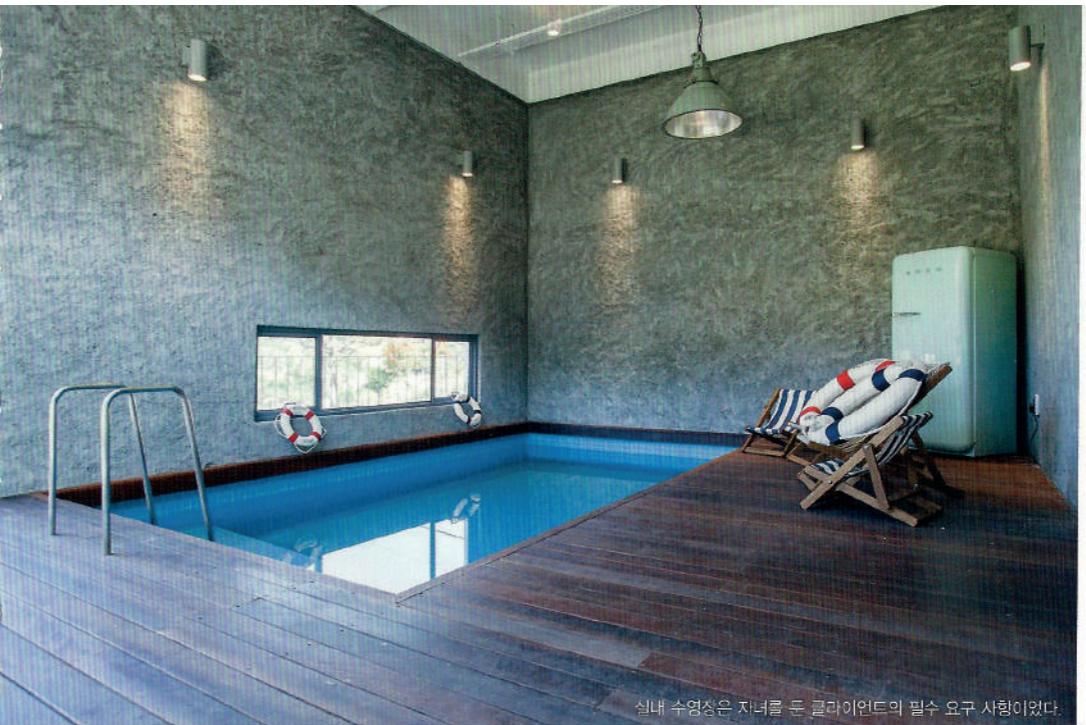


조명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앵글이다. 스튜디오라는 특성 상 층고를 높게 계획하여 포토그래퍼가 자유롭게 앵글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주택으로도 활용되는 공간이나 만큼, 기본적으로 복도, 계단 등 보통의 주거 공간 구조를 띤다. 각각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혹은 개별로 활용해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사진 작업에 어색하지 않도록 했으며, 층고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단열기능 때문에 시스템 창호가 필요했지만, 기존의 제품은 공간 콘셉트에 적절치 않아 커스텀 메이드 제품을 적용했다. 창호는 외관 이미지를 좌우하는 디자인 요소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외부와 달리 내부의 경우 각 공간마다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창호 양식이 적용됐다. 물론, 자연스러운 공간 연출과 더불어 최적의 채광을 위해 창의 위치를 결정했다. 마감재 종류도 최소화했는데, 스튜디오라는 특성 상 공간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벽면의 경우도 다양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이트 페인트를 선택했으며, 바닥 역시 노출 콘크리트에 에폭시 코팅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콘셉트의 공간에만 타일이나 마루 등 마감재를 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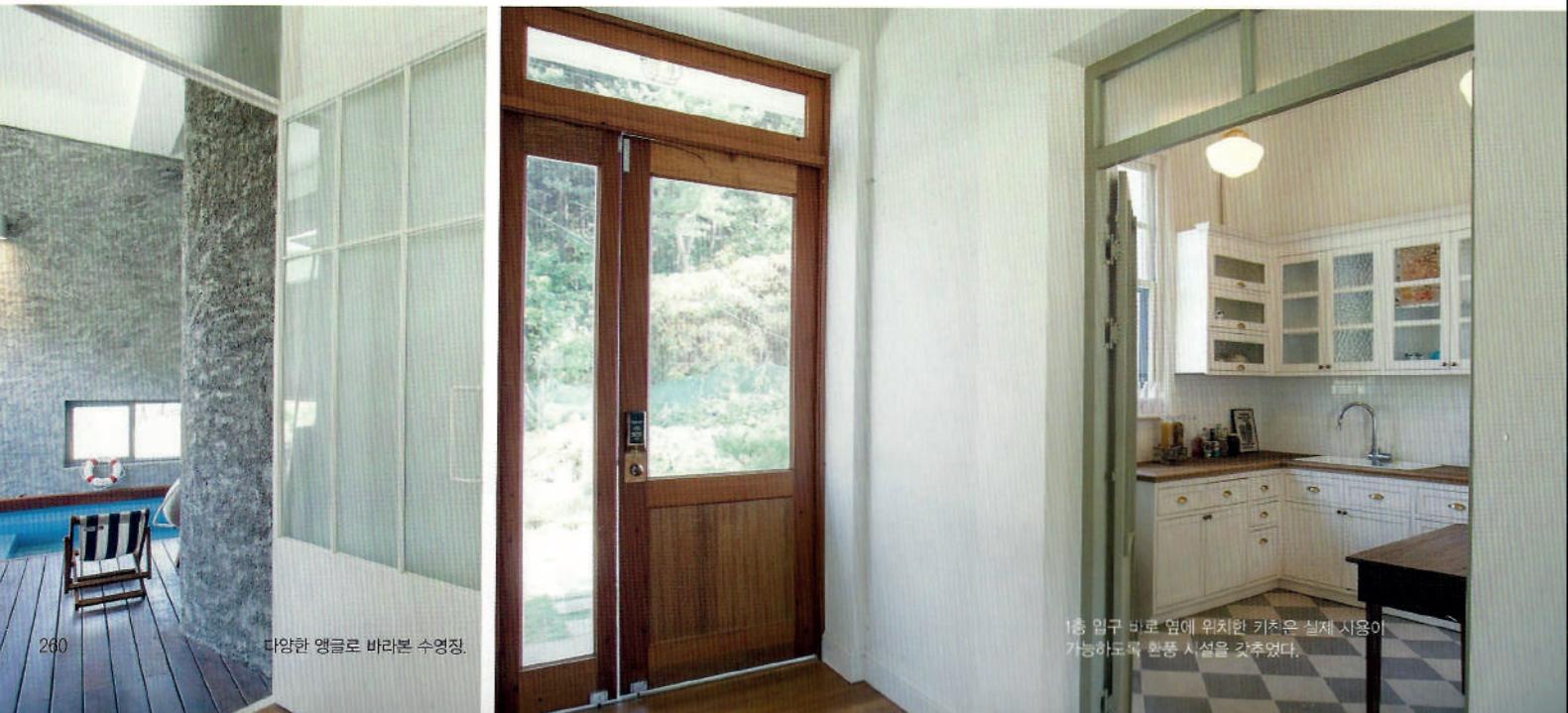


클래식한 디자인 패턴 타일과 푸른색의 결합, 우드 소재의 기구로 새워진 북미 스타일 카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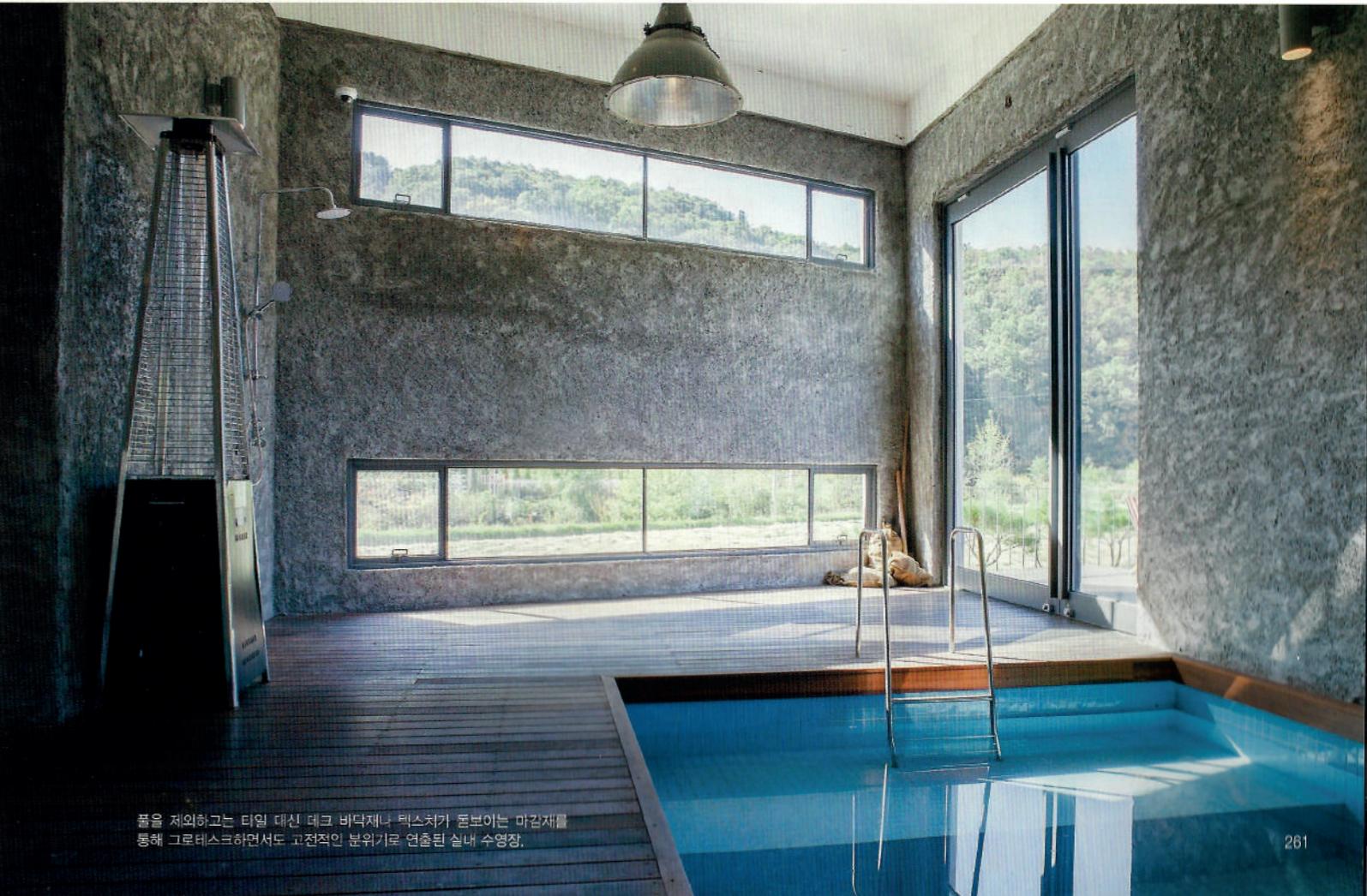


실내 수영장은 자녀를 둔 클라이언트의 필수 요구 사항이었다.

내부로 들어가면, 1층 현관 흘 옆에는 키친이 위치한다. 북미 스타일로 장식된 이곳은 마감재 보다는 공간 구조에서 콘셉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문의 프레임은 페일톤으로 내추럴하면서도 따뜻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디아몬드 패턴 타일은 클래식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거주자를 위해 실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환풍 시설을 갖추었다. 이어, 1층 실내 수영장은 클라이언트의 필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대개 수영장은 실외에 있기 마련이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실내 수영장을 계획했다. 1960~70년대 레트로 콘셉트로 풀을 제외하고는 타일 대신 데크 바닥재나 텍스처가 드러나는 마감재를 통해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고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1층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키친은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풍 시설을 갖추었다.



풀을 제외하고는 타일 대신 데크 바닥재나 텍스처가 드러나는 마감재를 통해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고전적인 분위기로 연출된 실내 수영장.



내추럴한 마감에 클래식 앤티크 풍 가구들이 어우러지며 더욱 풍성한 공간감을 완성해냈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이 드보이는 2층 풀.

무엇보다도, 양평 스튜디오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이 있으니, 바로 서재다. 많은 사람들이 서재를 갖고 싶어하는 바람처럼,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였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충고 높은 서재와 책들에 대한 이미지를 동경했다. 스튜디오는 한층 충고가 4m나 되기 때문에 1, 2층을 하나로 연결해 무려 8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서재를 만들 수 있었다. 고재를 활용해 서재 프레임을 짜고 오래된 서적들로 그 안을 가득 채워 클래식하면서도 앤티크한 스타일이 완성되었다.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주택'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예술적 감각이 담긴 '촬영 스튜디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영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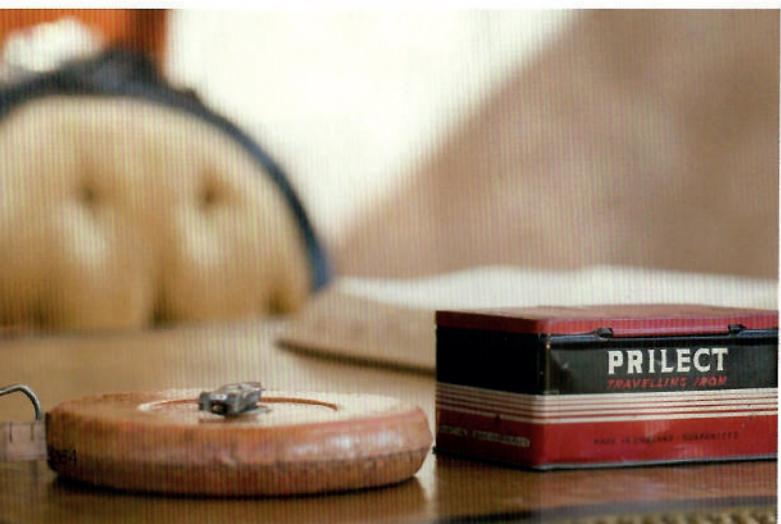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들이 마무는 콘셉트로, 파우더룸의 상징인 거울 조명이 포인트를 더한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며, 또 누군가의 작업을 위해 매번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

2층으로 오르면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들이 머무는 콘셉트의 파우더룸이 위치한다. 파우더룸의 상징인 거울 조명이 포인트를 더하고, 빛을 반사하는 유광 타일로 마감해 화려한 무대를 은유적으로 연상시키고자 했다. 그 밖에, 엘레강스함이 넘치는 침실은 마치 유럽의 한 박물관에 온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다. □



엘레강스함이 넘치는 침실은 마치 유럽의 한 박물관에 온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다.